

성당소식

지난 주일 미사 중 예비신자 선발예식과 첫번째 수련식이 있었습니다. 선발 예식에서 뽑힌 문세라 자매와 조재익 형제가 3주간의 수련식을 통해 영적 준비를 마치고 그리스도교 신자로 입교하는 세례 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
제 4주일

2022년
3월 2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9: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루카 15,32>

<이번 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여호수아기 5,9-10-12

화답송 시편34(33), 2-3.4-5.6-7(◎9)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5,17-21

복음환호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복음 루카 15,1-3.11-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주간 전례 말씀

월요일 03/21/22
화요일 03/22/22
수요일 03/23/22
목요일 03/24/22
금요일 03/25/22

토요일 03/26/22
일요일 03/27/22

제1독서/제2독서

열왕기 하권 5,1-15
다니엘 예언서 3,25.34-43
신명기 4,1.5-9
예레미야서 7,23-28
이사야서 7,10-14;8,10
히브리서 10,4-10
호세아 예언서 6,1-6
여호수아기 5,9-10-12
사도 바오로 코린토 25,17-21

복음 말씀

루카 4,24-30
마태오 18,21-35
마태오 5,17-19
루카 11,14-23
루카 1,26-38

루카 18,9-14
루카 15,1-3.11-32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최경자(마리아) - 최 헬레나
- 박병희 - 김 스텔라
- 김영례, 김길수(베네딕도) - 가족
- 한기석 - 가족
- 이창억(이냐시오) - 육 글라라 가족
- 허윤(에드워드) - 이 데레사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 - 손 유스티노

생미사 - 봉헌자

- 오경선(원선시오) - 이대우(베드로) 가족
- 정 마이클 - 가족
- 반석회 회원들 - 한상철(빈첸시오)
- 황선주(요셉피나) - 이서형(요안나)
- 김동근(사도요한) - 이서형(요안나)

주일 헌금

주일미사 참여 133명 **합계 : \$1,355**

교무금 납부 안내

전광수(3-4) 오용덕(3-4) 이용문(3)
 김영필(3-4) 이순분(1-12) 임문수(3-4)
합계: \$1,1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이석중(스테파노)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은 \$35,000 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3/22까지 약정금액은 \$19,235 (목표금액의 55%, 73가정 참여)입니다.

공지사항

2차헌금

- 4월 3일: 부활절 꽃 장식
- 4월 10일: 메타천 교구 은퇴사제
- 현재 Metuchen 교구에는 32분의 은퇴 사제가 계십니다. 10분은 은퇴한 성직자를 위한 Maria Regina Residence 에 살고 있으며, 다른 분들은 사제관이나 개인 주택, 또는 가족, 친구들이 마련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제들은 수많은 미사, 세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애도하고, 우리에게 봉사하며, 수십 년 동안 하느님과 우리 교구의 신자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이 사제들은 은퇴 후에도 미사를 집전하시고, 성사를 도와주십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영적인 지도자, 상담자, 스승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교구를 돕기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 교구에서 더 이상 사목을 할 수 없는 은퇴 사제분들도 그들의 기도와 모범을 통해 우리 지역 교회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 주님 수난 성지 주일(4/10)에 있을 2차 헌금은 Maria Regina Residence 시설 보조금 및 은퇴사제들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사순시기동안 미사 시작 30분 전(11시) 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사순 시기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및 특강

- 4/3 사순 5주일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님

사순시기 구역 모임 및 판공 성사 일정

- 4월 2일(토) 오후 6시 텃거스
- 4월 3일(일) 미사 후 썸머셋
- 4월 10일(일) 미사 후 에디슨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4월 3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 사목 및 기획위원들께서는 전원 참석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7일 (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 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예비 신자 수련식

- 3/27, 4/3 예비신자 수련식이 주일미사 중 거행됩니다.
- 이번 부활 성야에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예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 신자 명단 : 문세라, 조재익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한신분들께서는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1독서 < 여호수아기 > 5,9ㄱ-10-12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가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벗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 5,17-21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 복음 > 15,1-3.11-32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엄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